

癌腫의 病因病理에 對한 文獻의 考察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脾胃內科學 教室

田炳旭 · 柳逢夏 · 朴東源 · 柳基遠

1. 序 論

癌이란 人體內에서 成熟한 또는 發育中인 正常細胞가 여러가지 有關因素의 長期間의 作用下에서 出現하는 過度한 增生이나 異常 分化로 形成되는 新生物을 말하며 不規則의 으로 迅速하게 周圍의 器官組織으로 擴散, 轉移되어 人間의 健康과 生命에 危害를 주는 嚴重한 疾病이다¹⁾. 癌은 文明이 發達하고 産業이 分業化됨에 따라 發癌物質의 種類도 多樣해지고 壽命 延長으로 因해 老人人口가 增加되고 또한 診斷技術의 發達로 發見患者의 數가 많아져 發生率이 增加하고 있다. 全世界의 으로 많은 國家에서 癌이 國民死亡率 中에 第1位를 占하고 있어서 癌은 人類의 健康, 特히 社會의 重要한 位置에서 活動하고 있는 中年層 以上の 健康을 威脅하고 있다¹⁾.

西洋醫學에서 癌의 原因은 遺傳, 免疫, 代謝, 神經體液調節 等の 內部機構와 功能의 失調로 因한 內源의 要素와 物理的, 化學的, 生物學的 發癌因素로 因한 外源의 要素로 나누고, 그 治療에는 外科的 手術, 放射線, 化學藥物, 內分泌, 免疫調節 等の 方法을 活用하고 있으나 不確實한 效果와 毒性 및 副作用으로 因한 傷害 等이 問題點으로 擡頭되고 있다¹⁾. 그러므로 韓醫學의 治療方法의 活用으로 相互의 缺點을 補完하여 治療의 效果를 提高하고 副

作用을 最少化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韓醫學에서의 癌에 對한 認識은 〈黃帝內經〉¹⁰⁾에서 “凡七情六鬱之犯 飲食勞動之傷 而致痰凝氣聚 血蓄成癥”이라 한 것과 〈景岳全書〉²⁰⁾에서 “風寒外感之邪 亦能成癥”이라 한 것으로 보아 癌의 原因을 憂思憤怒 等の 七情內傷과 風寒邪 等の 六淫外感 및 飲食不調, 久病虛勞 等으로 나누어 認識하고 있으며, 病理機轉에 對하여서는 〈諸病源候論〉⁷⁾에서 “積聚者 臟腑之病也 虛勞之人 陰陽傷損 血氣凝澁 不能宣通經絡 故積聚于內也”하였고 〈景岳全書〉²⁰⁾에서는 “飲食之滯 非寒未必成癥 而風寒之邪 非食未必成形 故必以食遇寒 以寒遇食 或表邪未清 過于飲食 邪食相搏 而積斯成矣”라 하여 七情, 六淫, 飲食, 虛勞 等の 原因으로 痰, 食, 氣血이 相搏하여 結塊를 形成하므로 癌이 發生한다고 認識하였다.

이에 著者は 癌腫에 對하여 論述한 現代韓醫學書籍 10種과 特徵의 으로 나타나는 症狀과 類似한 病證과 證名에 對해 論한 歷代 韓醫學書籍 16種을 參考로 하여 癌腫에 對한 一般의 認識과 病因病理에 關하여 考察해 본 結果 若干의 知見을 얻었기에 이에 報告하는 바이다.

2. 考察方法

1) 癌腫에 對한 韓醫學의 認識範圍

癌腫에 對한 韓醫學의 認識範疇, 卽 癌腫에 依해 機體全般에 나타나는 症狀으로서 觀察할 수 있는 韓醫學의 證名과 機體 各部에 나타나는 各各의 癌腫의 特徵의 症狀으로 관찰할 수 있는 韓醫學의 證名을 알아보기 爲하여 癌腫에 關해 論述한 現代韓醫學書籍 10種을 中心으로 考察하였다.

2) 癌腫의 病因病理

癌腫에 對한 韓醫學의 認識範疇의 考察에서 나타난 韓醫學의 證名을 根據로 歷代韓醫學書籍 16種에서 찾아, 그 證에 對하여 論述된 部分을 拔萃하고 이를 中心으로하여 癌腫의 病因病理를 論한 現代韓醫學書籍을 參考로 韓醫學의 病因病理를 考察하여 보았다.

3. 本 論

1) 中醫師臨床手冊¹⁶⁾

腫瘤란 原因不明의 機體內 細胞의 異常增生으로 나타나는 相見疾病이다. 腫瘤는 中醫學 文獻中에 ‘瘤’, ‘岩’, ‘癥瘕’, ‘積聚’, ‘崩漏’, ‘噎膈’, ‘腸覃’, ‘失榮’, ‘舌菌’, ‘茧脣’ 등의 많은 疾病의 範疇에 屬한다. 七情, 飲食, 外邪 或은 久病 等の 多種因素로 因하여 臟腑氣血津液의 功能이 失調되어 氣, 痰, 瘀血, 熱毒이 鬱結積聚하여 相互爲患하여 發生한다. 腫瘤가 날로 發展하면 氣血이 날로 耗傷되어 마침내는 嚴重惡性結果를 形成한다. 病理分析上에 氣, 血, 痰, 瘀血, 熱毒은 標로 屬實하고 內臟功能失調 正氣虧虛는 本으로 屬虛한다.

胃癌과 食道癌은 消化器에서 比較的 常見되는 惡性腫瘤로 中年以上の 男子에게서 많이 發生한다. 中醫學에서는 噎膈 反胃의 範圍에 屬한다. 長期間의 憂思鬱怒와 嗜食酒辣油煎硬物로 肝失疏泄 胃失化降하여 氣滯 痰凝 血瘀 等の 一系列病理變化를 形成하여 胃의

通降之路를 阻塞하여 病延日久하면 氣火內鬱 津液耗損 陰血枯竭한 卽 胃失濡養하고 甚至於는 陰陽及陽과 胃氣虛敗 脾陽不振하여 晩期의 衰竭證候를 보인다.

肝癌에는 原發性和 繼發性的 兩種이 있다. 前者는 肝硬化의 基礎上에서 形成되고 後者는 其他部位의 腫瘤에서 轉移되어 形成된다. 中醫學에서는 癥瘕의 範疇에 屬한다. 熱毒壅結 氣滯血瘀로 肝脾受損하고 氣血日耗하여 邪實과 正虛가 相互錯雜하여 晩期로 發展한다.

肺癌은 中年以上の 男子에게서 多發하며 長期吸煙과도 一定한 關係가 있다. 臨床病理表現으로 보아 痰熱蘊肺로 絡損血瘀하고 久則傷陰耗氣하여 日漸虛損하게 된다.

子宮頸癌은 婦科에서 比較的 常見되는 惡性腫瘤로 經絕期前後에 好發한다. 中醫學에서는 帶下 崩漏 等 病中에 類似的 記載가 있다. 臨床資料를 根據로 分析하면 發病因素가 早婚多産 精神抑鬱 濕熱下注 宮頸糜爛 等과 關係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正氣不足 氣血凝滯하고 或은 濕毒鬱熱이 蘊積胞宮하여 形成된다. 本病은 早期에 나타나는 症狀이 뚜렷하지 않아 쉽게 不注意하게되고 症狀이 出現하게되면 往往 이미 晩期로 發展하게 된다.

2) 實用中西醫結合診斷治療學²⁸⁾

原發性支氣管肺癌: 中醫學 文獻中에서 肺癌의 證候와 類似的 部分이 肺積 息賁 咳嗽 喘息 胸痛 勞咳 痰飲 等證 中에 記載되어 있다. <難經> 中에서 ‘肺之積 曰息賁 左右肋下 覆如杯 久之不愈…發爲肺癰’이라 한 것과 <內經>에 記載된 ‘咳嗽脫形脈小數疾 大肉枯槁…胸中氣滿 喘息不便 內痛引肩項 身熱脫形破膈’, ‘大肉已脫 九候雖調者 尤死是也’ 等은 晩期肺癌의 臨床表現과 비슷하며 豫候가 不良하다.

乳腺癌：本病의 臨床表現의 特徵을 根據로 하면 中醫學에서는 乳癌의 範疇에 屬한다. … 青 馬兆張〈馬氏錦囊秘錄〉中에서 ‘婦人憂怒抑鬱朝夕積累 與痰結隱核不赤不痛 積之漸大 數年而發 內潰深爛 名曰乳岩 以其瘡形似岩穴也 慎不可治’라 하였다.

食管癌：食管癌은 우리나라에서 자주 보는 惡性腫瘤의 하나이다. 中醫學에서는 이를 噎膈 또는 傳統的으로 噎食症 倒食으로 稱한다. 〈內經〉에서는 ‘飲食不下 隔咽不通 食即嘔’라記載한 것에서 처음 볼 수 있다. …本病이 進行性呑咽困難을 爲主로 하여 表現特徵上 胸骨後 或은 上背部疼痛 梗噎 飲水可行 食物難入하므로 中醫學에서는 噎膈 噎食症의 範疇에 屬한다. …〈內經 通評虛實論〉에서는 ‘膈塞閉絕 上下不通 則暴憂之病也’, ‘三陽結 謂之膈 三陽者 大腸 小腸 膀胱也’라 하여 小腸熱結하면 血燥하고 大腸熱結하면 不能清(便)하고 膀胱熱하면 津液이 竭하므로 三陽이 結하면 前後가 閉하고 下行不通하므로 도리어 上行한다하였다. …〈諸病源候論〉에서는 ‘噎膈之證 憂思所致 憂悲則氣結 氣結則不宜流 便噎’라 하여 精神情志가 食管癌 發病에 影響을 미치는 것을 說明하였다. 中醫學에서는 痰濕熱結 氣滯血瘀 臟腑虛損이 食管癌發生에 有關한 것으로 認識하였는데 明代 徐靈胎는 ‘噎膈之證 必有瘀血 頑痰逆氣 阻膈胃脘’이라 하였고 元代의 朱丹溪는 ‘噎膈反胃 各患不同 病出一體 多有氣血虛弱而成’이라하였으며 明代의 李中宰는 ‘積之成也 正氣不足 而後邪氣踞之’等으로 論述하였다.

胃癌：臨床上 晩性週期性 或은 進行性 上腹部의 疼痛이 出現하고 症狀이 뚜렷이 甚하여지고 或은 規律性으로 變한다. 或은 腫瘤가 一定程度로 發展하면 梗噎現象이 나타나고 甚하면 朝食暮吐 暮食朝吐 宿穀不化하는 等

證으로 나타나는 것을 主要特徵으로 한다. 中醫學에서는 ‘胃脘痛’, ‘心下痞’, ‘反胃’, ‘心口痛’ 등의 範疇에 屬한다. 〈內經〉에서는 ‘膈咽不通 飲食不下 邪在胃脘’이라 하였고 〈金匱要略〉에서는 ‘暮食朝吐 宿穀不化 名曰反胃’라 하였고 元代의 朱丹溪는 反胃의 病은 ‘七情六淫 遂有 火熱上炎 多升不降 津液不布 積而成熱 血液虛耗 胃脘乾枯 大便秘少 上下不通’이라 하였고 明代의 張景岳은 ‘少年少見此證 而惟中衰 耗傷者多有之’, ‘食入反出者 以陽虛不能化也… 食不得下者 以氣結不能行也’라 하였다.

原發性肝癌：肝癌의 臨床表現은 肝區疼痛 肝臟腫大와 黃疸 等證이 많이 보이므로 中醫學에서는 肝積 肝癰 脾氣 積聚 鼓脹 黃疸 九種心痛 等證의 範疇에 屬한다.

大腸癌：中醫學에서는 臟毒 下焦濕熱 腸風 鎖肛痔 腸覃 等證의 範疇에 屬한다.

3) 中醫外科學⁵⁾

腫瘤概論：腫瘤은 中醫學에서는 瘤 癥瘕 積聚 噎膈 鎖肛痔 乳岩 舌岩 蝨腎 石疽 癰瘤 失榮 等 疾病中에 記載되어 있다. 〈諸病源候論〉에서는 腫瘤에 對하여 ‘瘤者皮肉中忽腫起 初梅李大 漸長大 不痛不痒 又不結強 言留結不散 謂之爲瘤’라 하였다.

病因病理：腫瘤의 病因에 對하여서는 現在로는 認識이 完全하지 못하다. 中醫學에서는 內傷七情이 腫瘤의 發生에 重要한 部分을 차지하는데 예를 들면 〈外科正宗〉에서 ‘乳岩由于憂思鬱結 肝脾氣逆 而致經絡阻塞 結積成核’이라 한 것과 같다. 이 외에 六淫之邪도 致病因素가 되는데 〈內經〉에서 ‘寒氣客于腸外 與衛氣相搏 氣不得營 因有所系癖而內着 惡氣乃起 息肉乃生 其始得也 大如鷄卵…’이라한 것과 같다. 또한 飲食 丹石中毒 等도 致病因素가 되는데 〈醫學統旨〉에서 ‘酒面炙溇粘滑難化之物 滯于中宮 損傷腸胃 漸成痞滿吞酸 甚則爲

噎膈反胃'라한 것과 같다. 內傷方面은 氣鬱, 氣滯, 血瘀 等이고 外邪方面은 痰凝, 濕聚, 毒蘊 等이다.

舌癌: 舌癌은 上皮癌의 하나로 舌面に 生하여 菌의 形狀을 하고 있어 中醫學에서는 舌菌이라 한다.

皮膚癌: 皮膚癌에는 鱗狀上皮癌 基底細胞癌 惡性黑色素瘤 汗腺癌 等이 있는데 그 中 鱗狀 및 基底細胞癌에 많이 보인다. 中醫學에서는 兩種의 皮膚癌과 그 外 一種의 兩性乳頭狀瘤를 통틀어 癩花瘡이라 한다.

陰莖癌: 本病은 上皮癌의 一種으로 陰莖은 腎에 屬하므로 中醫學에서는 腎岩이라 하여 日久하여 變化하여 形이 石榴같다하여 癩花下疳이라고도 한다.

乳癌: 乳癌은 乳岩이라고도 하는데 女性에게 常見되는 惡性腫瘤 中에 하나이다.

直腸, 肛門癌: 直腸, 肛門癌은 後期에 이르러 肛門이 狹窄되어 鎖住肛門과 같은 模樣이 되므로 中醫學에서는 鎖肛痔라고 한다.

骨肉瘤: 骨肉瘤는 骨肉瘤와 軟骨肉瘤, 骨纖維肉瘤의 三種으로 나뉜다. 骨肉瘤가 가장 惡性으로 靑少年에서 많고 管形의 長骨端에서 많이 나타난다. 中醫學에서는 骨瘤라 한다.

4) 實用中醫內科學⁶⁾

定義: 中醫學의 癌 或은 瘰은 岩과 같다. 이것은 體內에 腫塊가 나타나 表面은 高低不平하고 質은 堅硬하고 바위를 얹어놓은 形態를 하고 있다. 癌의 發病은 主로 臟腑陰陽氣血의 失調에 起因하는데 이것은 正氣虛한데 外邪의 侵入 或은 痰濕 氣瘀 等과 結搏되어 日久하여 積滯되어 생긴다.

歷史沿革: 殷墟甲骨文字 上에 瘤字의 記載가 있었다. <靈樞 刺絕眞邪篇>에 또한 筋溜 腸溜 昔瘤 等の 記載가 있다. 晋代 葛洪의 <肘後備急方 卷之四 治卒心腹癥堅方第二十

六>中에 '治卒暴症 腹中有物如石 痛如刺 晝夜啼呼 不治之百日死'라 한 것에서 보듯이 癥堅은 대체로 現在의 癌腫을 指稱한 것이라 보인다. 宋代 <聖濟總錄 癥瘤門>에서 '瘤之爲義 留滯而不去也 氣血流行不失其常 則形體和平 無或余贅 急鬱結壅塞 則乘虛投隙 瘤所以生 初爲小核 癥以長大 若杯孟然 不痒不痛 亦不結強 方劑所治 與治癥法同 但癥有可鍼割 而瘤慎不可破爾'라 하여 腫瘤의 病因病機가 氣血停滯로 余贅를 形成하고 鬱結壅塞된 所致임을 說明하였다. 宋代의 <衛濟寶書 卷上 癥疽五發一曰岳>中에 제일 먼저 岳字가 使用되었는데 '岳疾初發 却無頭緒 只是肉熱痛 過一七或二七 忽然紫赤微腫 漸不疼痛 迤邐軟熟 紫赤色 只是不破宜下大車螯散取之 然後服排膿敗毒托裏內補等散破 後用麝香膏貼之'라 하여 癌疾의 名稱이 使用되었으나 敘述된 症狀이 惡性腫瘤와 完全히 符合되지 않는다. <仁濟直指附遺方論 卷二十二發癥方論>에서 癌의 特徵을 比較的 깊게 敘述하고 있는데 '癌者上高下深 岩穴之狀 顆顆累垂...毒根深藏 穿孔透裏 男則多發于腹 女則多發于乳或項或肩或臂 外症令人昏迷'라 하였다. 古代醫家들은 癌症에 對하여 이미 相當한 認識이 있었는데 肉眼的으로 볼 수 있는 體表의 癌症에는 乳岩 腎岩 蝨腎 舌菌 失榮 癭瘤 等の 區分이 있다. 內臟에 罹患된 癌症에 對하여서는 癥癧 積聚 噎膈 反胃 崩漏 帶下 等證 中에서 散在되었다. 그러나 歷代醫家들이 말한 癌症의 概念과 內包된 意味는 現代의 癌腫과 完全히 一致하지는 않는다.

病因病機: 外因: 外來의 風寒邪氣가 痰食之滯와 더불어 相互影響하여 形成한다. 飲食에 傷하여 脾虛하게되고 脾虛하면 痰食이 停滯하여 腸胃之間에서 寒溫不調로 外邪와 더불어 搏結하여 積聚를 形成한다.

內因：七情飲食 등의 因素가 長期間 人體에 作用하여 形成된 機體의 陰陽失調와 正氣衰退가 癌症의 生成과 成長의 條件이 되고 癌症이 빠르게 發展하던 더한층 正氣를 耗傷하고 臟腑氣血陰陽失調로 痰結 濕聚 氣阻 血瘀 鬱熱 등과 같은 一連의 病理性 因子를 生成하여 正虛와 同時에 併存하여 相互因果關係를 이루어 惡性循環을 만들어내므로 癌症은 쉽게 治愈되지 않는 것이다.

總括하여 말하면 癌症의 原因은 內因과 外因으로 나눌 수 있는데 外因은 外邪를 感受하는 것과 관계가 있고 內因은 七情內傷과 飲食失調와 關係가 있다. 年老하고 脾腎衰退之人에게 많고 病機 上에서 機體의 臟腑陰陽氣血의 失調와 外來의 致病因素는 반드시 機體의 內部에서 形成된 痰 濕 氣 瘀 등의 病因素과 搏結함으로써 癌症이 發生한다.

肺癌은 咳嗽 肺痿 肺癰 등에서, 鼻咽癌은 鼻淵 鼻軌 腦漏 鼻癰 失榮 등에서, 食管癌은 噎膈 등에서, 胃癌은 反胃 등에서, 腸癌은 腸毒下血 鎖肛痔 등에서, 肝癌은 脾積 肝積 積聚 癰黃 鼓脹 黃疸 등에서, 膀胱癌은 尿血 淋證 등에서, 白血病은 虛勞 虛損 등에서 그 症狀를 찾을 수 있다.

5) 癌症診治康復 350問¹⁵⁾

中醫學 文獻中에서 腫瘤形成의 理論과 治療의 方藥에 對한 敘述과 記載는 이미 많이 있다. 그 中에서 이미 지금까지 中醫臨床治療에서 效果를 얻고 있는 것도 있다. 中醫學에서는 惡性腫瘤를 大多數 病狀 或은 體證을 主로 하여 命名하고 있다. 文獻에 敘述된 具體的 病情을 分析하면 그中 어떤 病에 對하여 描述된 것이 어떤 種類의 腫瘤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噎膈은 食道癌 食噴癌에 相當하고 反胃는 食竇癌과, 症積은 腹部內惡性腫瘤와, 脾積(痞氣)은 肝癌 및 肝脾腫大와, 肝

積(肥氣, 脾黃)은 肝腫瘤와, 肺積(息賁)은 肺癌과, 心積(伏梁)은 胃 肝 膽 脾腺腫瘤의 範圍안에 屬한다. 失榮은 亞急性淋巴瘤나 頸淋巴結轉移癌에, 上石疽는 頸淋巴結轉移癌이나 惡性淋巴瘤에 相當한 乳癌은 乳腺癌과, 疾乳는 乳腺濕疹樣癌과, 石癭은 甲狀腺癌과, 腎岩은 陰莖癌과, 蝨腎은 腎癌과, 舌菌은 舌癌과, 喉百葉은 喉癌과, 五色帶下는 宮頸癌晚期 및 盆腔惡性腫瘤와, 骨疽는 骨의 惡性腫瘤와 같으며 石丁, 黑丁, 翻花瘡은 體表의 惡性腫瘤와 黑色素瘤, 惡性潰瘍 등에 相當한다. 肉瘤, 六色疽는 軟組織惡性腫瘤에 相當한다하였다. 病因方面에서는 內因과 外因의 兩方面이 있는데 特히 精神狀態가 癌症의 發病에 重要な 作用을 한다.

6) 癌瘤防治研究²⁾

腫瘤는 惡性과 良性으로 나누어지는데 癌腫는 惡性腫瘤의 一種으로 사람의 健康에 큰 影響을 미칠뿐만 아니라 生命을 危殆롭게 하는데 대개의 癌腫는 發病部位에 따라 “~”癌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韓醫學 文獻에는 일찌기 瘤 腫瘍 癌 癭瘤 巖 및 噎膈 反胃 癥瘕 積聚 乳巖 陰瘡 繭腎 舌菌 등의 癌瘤와 類似한 疾病들이 記錄되어 있다.

腫瘤는 主로 氣滯血瘀와 臟腑의 機能失調로 말미암아 發生한다. 正常人에 있어서는 氣가 昇降出入하면서 온몸을 規則的으로 循環하는데 體內와 體外의 어떠한 要因의 影響下에서는 氣의 機能이 調和를 喪失하여 鬱滯되고 그것은 반드시 血瘀를 일으키니 氣滯血瘀가 오래되면 塊를 이룬다. 五臟中에서 主로 消化機能을 擔當하는 脾는 本來 濕을 싫어하는 性質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濕의 損傷을 받으면 그 氣運이 虛해져서 飲食物을 제대로 消化, 運搬하지 못하므로 이에 津液이 한데 엉기어 마침내 痰이 되며, 腎陰이 虛해도 肝

火가 津液을 메달려 痰이 생기는데 痰이 凝結되어 있으면 塊가 된다. 或은 火毒이 안에 쌓여 情緒의으로도 불(火)같이 뜨겁고 急激하게 되거나 六淫이 侵入하여 火가 되더라도 血이 火를 만나면 凝結되고 氣血이 紊亂해서 經絡을 막아버리니 이것이 오래되어도 塊를 形成하며 或은 脾와 腎의 機能이 失調되어도 疾病이 發生한다. 그런데 다만 大部分의 癌腫는 情緒的인 鬱結이나 疲勞의 蓄積, 飲酒過度, 病毒의 侵入, 어떤 特別한 刺戟 등으로 말미암아 生理機能의 異常이 일어나 局部組織이 變形, 變性되는 것이니 病이 進行하는 過程중에서 津液이 消耗되고 陰血이 메달려 버리기 때문에 惡性組織이 생겨나 結局은 癌腫가 되는 것이다.

食道癌은 關格 膈證 噎膈 膈食 回食病 등과 類似한 症狀으로 나타나며, 胃癌은 反胃 胃反 膈氣 등과 類似한 症狀으로, 肺癌은 肺積 息賁 등과, 子宮癌은 石瘕 瘕聚 血蠱 血瘕 血癥 등과, 乳腺癌은 妬乳 苟抄乳 乳痛堅 乳石痛爛巖 乳巖 등과, 肝癌은 肝積 肥氣 堅癥 積聚 肝脹 肝著 및 癰黃 등과 유사한 증상으로, 腸癌은 大腸部位의 癌腫를 韓醫書에서는 腸中積聚라고 부르고 있는데 臨床의으로는 腸癌을 다시 結腸癌(腸風下血), 直腸癌(臟毒), 肛門癌(結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하엿다.

7) 癌 治療에 있어서 現在와 展望³⁾

癌과 비슷한 病名은 乳巖뿐이며, 그 외는 積聚 癥瘕 疝瘕 腦疽 氣瘤 血腫 噎膈 臟覃 등의 病名으로 癌과 비슷한 病症으로 記錄된 것도 있으나 科學的 證明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癌과 같다고 斷定내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

病因에 있어서는 打撲傷으로 因한 血瘀, 憂思憤怒의 情緒로 因한 氣鬱血瘀, 飲食不節로

因한 宿滯食積, 酒色亂用으로 因한 陰陽의 不均衡 등으로 氣血이 不循環으로 經絡과 血脈이 阻滯되어 氣聚血凝으로 腫塊가 形成된다.

8) 癌의 中醫治療³¹⁾

(1) 中醫學의 癌에 對한 一般的 認識: 中醫學의 癌은 岩에서 連想한 말이며, 體內에 出現하는 表面이 울퉁불퉁하고 굳은 腫塊를 指稱한다. 古代에도 많은 癌에 關한 記錄이 있지만, 專門書는 적어서 '癥瘕', '積聚', '噎膈' 등과 連繫된 病證 가운데 散見된다. 內臟癌은 대체로 '癥瘕', '積聚', '疝瘕', '反胃', '臟毒', '腸覃', '石瘕', '十二滯症', '崩漏', '骨疽' 등의 病名 가운데 包括된다. 體表의 癌은 '惡瘡', '失榮', '蝨瘡', '舌菌', '乳岩', '黑疔', '癭瘤', '腎岩' 등에 該當한다. 癌의 病名은 部位, 腫瘍의 形態 및 主要한 症狀 등에서 命名되고 있는데 中醫學에서의 癌의 證名은 胃癌은 噎膈 反胃 胃脘痛 癥瘕 등으로, 肺癌은 肺積 疝瘕 咳嗽 胸痛 喘息 등으로, 乳癌은 乳岩과, 子宮癌은 帶下와 肝癌은 癥瘕 積聚 黃疸 鼓脹 肥氣 등으로, 腸癌은 癥瘕 積聚 臟毒 등으로, 皮膚癌은 惡瘡으로 命名된다.

(2) 癌의 病因病機: 病因: 癌의 病因도 다른 疾患과 마찬가지로 外因, 內因 및 生活環境, 飲食起居 등에서 찾을 수 있다.

外因: 中國에 現存하는 最初의 病因, 症候學專門書인 <諸病源候論>에는 '積聚는 陰陽이 不和해서 臟腑가 虛弱한데 風邪를 感受하여 風邪가 臟氣를 치기 때문이다'라고 記載되어 古人이 癌 病因으로서 外邪가 有關하다고 認識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內因: 過度한 感情은 癌의 病因 中 重要한 位置를 占한다. 憂慮는 脾를 傷하고 怒는 肝을 傷한다 등. 憂鬱하여 마음이 舒暢하지 못하면 五臟의 氣機가 停滯되고 脈絡이 阻礙되어 氣血이 積滯해서 發病한다. <素問 通評虛

實論)에는 膈이 閉塞되어 上下가 不通하면 暴憂의 病이 된다고 했고, 噎膈의 發病은 暴憂와 有關하다고 指摘하였다.

飲食起居 等 : 古人은 일찌기 飲食生活習慣이 癌의 發病과 有關함을 重視했다. 過度한 飲酒나 뜨거운 것, 매운것, 기름에 튀기거나 지진것, 불에 구운것 等, 消化가 잘 안되는 飲食物의 多食으로 胃에 積熱이 생겨 그것이 오래 持續되면 陰이 傷하여 飲食物을 精微物質로 化生시킬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津枯血燥해서 瘀血이 停滯되어 엉긴다. 또한 痰이나 濕이 생겨서 痰과 瘀가 搏結되어 癌이 發生한다. <醫砭>에는 '嗜酒者에는 噎膈이 많고, ...'라 하였으며 이밖에도 '積은 傷滯이다. 傷滯가 오래되면 停留해서 變化하지 않고 積이 形成된다'고 古人은 述하였다. <張氏醫通>에서는 '熱을 좋아하는 사람은 膈證을 앓는 수가 많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平素의 飲食不節制가 脾胃를 損傷하고 더 進行되어 痰濁, 食滯, 氣鬱, 血瘀 等の 病理變化를 招來하는 것이 癌發生의 主要原因이 된다. 또 好發年齡에 關해서도 中醫學에는 多方面의 認識이 있다. '少年에게는 이 證이 적고 衰弱者에게 많다'(<景岳全書>) 또는 噎膈病은 '高年齡의 男子에게 많다' 등의 記載가 있다.

以上과 같이 癌의 發生에는 年齡, 性別, 患者의 體質 및 飲食, 生活習慣이 密接한 關係가 있다. 이러한 것은 現代의 西洋醫學에서의 癌의 病因, 發病의 認識과 相通하는 點이 있다.

病機 : 病因이나 個體의 抗病力의 差異 等으로 相異한 病理變化가 생겨서 同一한 癌(例컨대 反胃-胃癌)일지라도 時期가 다르면 病理機轉이 같지 않다. 以下에 흔히 보이는 病機를 分述한다.

氣滯血瘀型 : 感情의 失調로 因해 肝氣가 鬱結하든지 外邪를 感受하여 氣滯가 생긴다.

氣가 停滯되면 血瘀가 發生하며, 그것이 오래 되면 變化하지 않고 結塊가 된다.

痰凝毒聚型 : 脾肺機能의 失調로 因해 陽氣가 宜散하지 못하여 水濕이 變化하지 않고 津液도 퍼지지 않으며 昇降作用이 失調되므로 痰濁이 凝結된다. 痰이 凝結되는 部位가 다르기 때문에 相異한 病症이 나타난다. <丹溪心法 痰>에는 '무릇 身體의 上, 中, 下에 塊가 있는 것은 대개가 痰이다'라는 記載가 있다.

毒熱蘊結型 : 邪毒은 邪毒 그 自體를 外邪로서 感受하거나 或은 邪熱이 오래 體內에 留하여 鬱結해서 變化되지 않고, 臟腑를 燒灼하여 發生한다. 그로 因해 腫塊가 形成되거나 肉이나 血이 腐敗해서 膿血이 그치지 않게 된다.

正氣虧虛型 : 癌은 本來 正虛한 狀態에서 發生하는 것이다. 라서 各病理類型에는 모두 正虛가 있는 것인데, 그 程度는 相異하다. 本型의 患者는 臟腑氣血의 虛損이 主가 되며, '瘤邪'가 虛를 틈타서 深入하므로 正氣가 더욱더 消耗되어 邪盛正虛가 되어 病勢는 陰惡化된다.

脾虛濕聚型 : 脾胃가 虛弱하면 運化作用이 不健全해져서 水濕이 內部에 모여 蓄積되어 毒이 된다. 濕毒이 氾濫해서 점차 스며들면 瘡가 생겨, 膿이 흘러내려 오래 낫지 않는다. 濕毒이 下注하면 帶下淋濁이 된다.

中醫學에서는 整體觀을 強調하는데 癌에 對해서도 整體觀에서 出發한다. 癌의 病理로서는 上記한 分型이 單獨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邪와 正氣가 鬭爭하여 虛實을 判別하기 어려운 複雜한 相互錯綜된 경우도 있다.

9) 腫瘤臨證備要¹⁷⁾

癌의 病因에 關해서는 化學 物理 生物學 等の 致癌因素과 風寒暑濕燥火가 모두 外因

에 屬하나 이러한 致病因素에 接觸하는 사람 모두에게 腫瘤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內分泌失調, 免疫功能低下, 先天性缺損과 七情變化 等の 內因도 腫瘤發病에 있어서 重要하다. 古代醫書 中 腫瘤의 病因에 對한 記載는 많다. 一般的으로 腫瘤의 形成은 氣虛血瘀, 寒熱搏結, 情志鬱結과 有關하다. <婦人大全良方>에서는 '肝脾鬱怒 氣血虧損 名曰乳癌' 이라 하였고 <醫宗必讀>에서는 '積之成也 正氣不足 而後邪氣踞之'라 하였으며 <難經>의 五十五難에서는 '積者 五臟所生 聚者 六腑所成也'라 한 것으로 보아 中醫學에서는 腫瘤의 形成은 正氣不足, 臟腑失調로 因하여 氣滯血瘀, 痰凝毒聚, 毒熱蘊結하여 腫塊를 形成하는 데 이를 岩 或은 瘤라 한다.

病機에 關해서는 대개 네가지 型으로 나뉜다.

熱毒蘊結型: 邪熱蘊鬱 鬱結不化 灼煉臟腑 日久生毒而成腫塊

痰凝毒聚型: 脾肺功能失調 陽氣不宜 水濕不化 津液不布 升降失常 凝結成痰 痰濕蘊結 着于臟腑 形成陰毒 結于體表 可爲瘰癧

氣滯血瘀型: 氣鬱不舒 血行不暢 導致氣滯血瘀 瘀結日久 必成癥瘕積聚

陰陽失調型: 各種原因으로 因한 氣血不足 肝腎陰虛 脾胃不運 陽氣不振은 共히 臟腑失調 留滯客邪하여 腫物을 形成

腎癌은 莖腎에서, 舌癌은 舌菌에서, 鼻咽癌은 腦砂에서, 喉癌은 喉瘤 爛喉風 纏喉風 喉痺 等에서, 甲狀腺癌은 瘰癧에서, 乳腺癌은 乳石癰 乳岩 妬乳 等에서, 肺癌은 息賁에서, 肝癌은 脾積 肥氣 癖黃 血黃 等에서, 胰腺癌은 結胸 膈痛 心痛에서, 食管癌은 膈中 噎膈 等에서, 胃癌은 心積 伏梁 反胃 噎膈 等에서, 肛門 直腸癌 鎖肛痔 積聚 腸覃 等에서, 膀胱腫瘤은 溺血 血淋 濕毒下注 等에서, 宮頸癌은 帶下에서, 惡性淋巴瘤는 石疽 陰疽 癰癧 惡核

失榮 等에서, 白血病은 虛損 勞瘵血證 熱勞 積聚 等에서, 骨肉瘤는 骨勞 腎虛勞損 等에서, 脊髓腫瘤는 風痺 癱瘓痿痺 等에서, 骨髓瘤는 血虛頭痛 肝火頭痛 痿痺 腎虛 等에서, 黑色素瘤는 脫疽 歷疽 等에서 비슷한 症狀을 찾을 수 있다.

10) 中西醫結合治療癌症²¹⁾

古代醫書中에 腫瘤는 腫瘍 或은 瘡瘍의 範圍內에 散在되어 있다. 그 主要名稱은 癭 瘤 岩 菌 癥瘕 積聚 噎膈 反胃 腸覃 痞塊 瘰癧 潰瘍 毒瘡 翻花 息肉 疣痣 贅惡肉 肉瘤 等이다. 이런 病名은 現代醫學中에서 描述된 腫瘤 或은 某種의 腫瘤의 癌前期病變과 相同하거나 近似하다.

失榮: 失榮症은 現代醫學의 頸部惡性腫瘤, 淋巴肉瘤, 何杰金氏病, 網織細胞肉瘤, 巨濾胞性淋巴肉瘤와 비슷하고 鼻咽癌이 頸部淋巴로 轉移되어 생긴 腮腺癌 等과 類似하다.

乳癌: 이는 現代醫學의 乳腺癌의 症候와 비슷하다.

噎食症(或 噎膈 膈證 關格): 現代醫學의 食管癌 或은 食管末端賁門癌 等과 類似하다.

反胃: 反胃는 飲食物은 能히 내려가나 오래되어 다시 吐出하는 症狀을 말하는데 現代醫學의 胃癌의 症候와 類似하다.

積聚: 이는 腹部的 腫瘤를 말하는데 固定不移하고 推之不動하는 것은 積이라고하고 推之可動하는 것은 聚라한다. 이것은 腹部內 大小腸과 肝臟, 脾臟 및 子宮 等の 腫瘤를 包括한다.

伏梁: 이는 現代醫學에서의 脾腺腫瘤 및 脾腺炎 等症과 類似하다.

肝積(肝脹, 肝疽, 肝癰): 이는 肝臟部位의 腫瘤와 類似한데 대체로 原發성과 繼發性肝癌 等病을 包括한다.

肺積(息賁): 이는 肺部的 腫瘤와 肺膿瘍

等病을 指稱한다.

石瘕：이는 宮頸癌의 證候와 類似하다.

腎岩：陰莖癌과 비슷하다.

蝨贅：贅癌과 類似하다.

舌菌(舌疔)：舌癌을 말한다.

肉瘤：惡性腫瘤를 指稱한다.

石丁 石疽 黑丁 青丁 翻花瘡：皮膚의 惡性腫瘤, 癌性潰瘍 및 黑色素瘤 等症과 비슷하다.

骨瘤(骨疽)：骨格上的 陽性 및 惡性腫瘤를 包括한다.

筋瘤：纖維肉腫 等病을 指稱한다.

病因病機：氣血不和, 痰濕不化, 毒邪爲患, 臟腑虛損

內因：七情不舒, 飲食不節, 過度勞倦, 老年衰老 氣血虧損

外因：外感六淫

2. 癌腫과 類似的 證에 對한 歷代文獻의 考察

1) 黃帝內經素問¹⁰⁾

* 通評虛實論：隔塞閉絕 上下不通 則暴憂之病也

* 腹中論：帝曰病有小腹盛上下左右皆有根此爲何病 岐伯曰 病名曰伏梁 帝曰伏梁 因何而得之 岐伯曰 裹大膿血居腸胃之外不可治 治之每切按之致死 帝曰 何而然 岐伯曰 此下則因陰 必下膿血 上則迫胃脘 生隔挾胃脘內痛

* 四時刺逆從論：厥陰畜則病小腹積氣 少陰畜則病積則血 太陰畜則病積腹時滿 陽明畜則病積時善驚 太陽畜則病積善時嶺疾 少陽畜則病積時筋急目痛

2) 黃帝內經靈樞¹⁰⁾

* 五變篇：黃帝曰 人之善病腸中積聚者 何以候之 少俞答曰 皮膚薄而不澤 肉不堅而掉澤 如此則腸胃惡 惡則邪氣留止 積聚乃傷 脾胃之

間 寒溫不次 邪氣稍至 蓄積留止 大聚乃起... 津液血氣 腸胃之所生也 腸胃惡則 邪氣留止而成積聚 內傷腸胃之間 若在飲食之寒溫不次 邪氣稍之即蓄積

* 百病始生篇：積之始生 得寒內生厥 乃成積也

* 九鍼篇：四時八風之客于經絡之中 爲瘤病者也

* 膠刺篇：凡七情六鬱之犯 飲食勞動之傷 以致痰凝氣聚 血蓄成積

* 邪氣藏府病形篇：有所大怒 氣上而不下 積于脇下則傷肝

* 水脹篇：腸軍何如 岐伯曰 寒氣客于腸外 與衛氣相搏 氣不得榮 因有所系 癖而內着 惡氣乃起 息肉乃生 其始生也 大如鷄卵

3) 金匱要略²³⁾

* 脈弦者虛也 胃氣無餘 朝食暮吐 變爲胃反

* 虛則傷脾...脾傷則不磨

4) 備急千金要方⁹⁾

* 噎膈論：五噎者 氣憂勞食思也

* 反胃：脾傷 難治

5) 諸病源候論⁷⁾

* 憂規則氣結 氣結則不宜流便 噎 噎者噎塞不通也

* 五噎：氣憂食勞思

* 陰陽不和 藏氣不理 寒氣填於胸膈故氣...

* 積聚者 乃陰陽不和 臟腑虛弱 受于風邪 搏于臟之氣少爲也

* 積聚者 臟腑之病也 虛勞之人 陰陽傷損 血氣凝滯 不能宜通經絡 故積聚于內也

6) 濟生方¹¹⁾

* 積者生于五臟之陰氣也 聚者成于六腑之陽氣也 此有陰陽不和 臟腑虛弱 風邪搏之所以爲積爲聚也 有如憂思喜怒之氣 人之所不能無者 傳剋不行 乃留結而爲五積 故在肝曰肥氣 在心

曰伏梁 在脾曰痞氣 在肺曰息賁 在腎曰奔豚

7) 儒門事親²²⁾

* 此皆抑血不伸而受其邪也 積之成也 或因暴怒喜悲思恐之氣 或傷矣苦甘辛鹹之食或停溫冷熱寒之飲 或受風暑暴寒火之濕之邪 其初微甚 可呼吸 按尋方寸 散而去之 不辛而遇庸醫強補而留之 留而不去 遂成五積

8) 東垣十書²⁴⁾

* 因飲食失節 勞役形體 心火乘於上位 胃氣弱而下陷 入陰中故 未合入而不得升降…咽膈之間 壅遏之其不得交通者

9) 丹溪心法²⁷⁾

* 腫胃 大約有四 血虛 氣虛 有熱 有痰兼病
* 痞塊在中為痰飲 在右為食積 在左為血塊 氣不能作塊成聚 塊乃有形之物也 痰與食積死血而成也 脾胃虛 肝胃虛 肝火積 氣滯而成痰食積死血 凡積病不可用下藥 從損真氣 病亦不法
* 乳岩 憂怒鬱竭 時日積累 脾氣消泄 肝氣橫逆 遂成隱核如繁棋子
* 此病多因厚味濕熱之痰 停蓄膈間 與滯乳相搏而成

10) 證治要訣¹⁴⁾

* 噎膈 是痰為氣 所激而上 氣又為痰 所隔而滯 痰與氣搏 不能流通

11) 外科正宗²⁹⁾

* 乳癰乳巖 憂鬱傷肝 思慮傷脾 積傷再心 所願不得 致經絡痞澁 聚結成核
* 疔瘡, 疔瘡因過食煎炒炙燻 又兼思慮暴急 痰遂火行 留注于腎

12) 婦人大全良方³⁰⁾

* 若初期 內結小核 或如繁棋子 不赤不痛 積之歲月漸大 峻岩崩破如熟石榴 或內潰深洞 此屬肝脾鬱怒 氣血虧損 名曰乳岩

13) 醫學入門¹⁹⁾

* 噎膈 病因 內傷憂鬱 失志及飲食 淫慾而動 脾胃肝腎之火 或因雜病 誤服辛香燥藥 俱

令血液衰耗 胃脘枯槁

* 積聚癥瘕痞悶 皆太陰濕土之氣 始因外感 內傷氣鬱 醫誤補而留之 以成積 積者陰氣 五臟所生 脈沈伏 或左或右 發有根 痛有常處

* 肝積左脇下曰肥氣 言風氣有餘而血遂氣不行也

14) 醫宗必讀¹⁸⁾

* 反胃 噎膈 總是血液衰耗 胃脘乾槁 槁在上者 水飲可行 食物難入 名曰噎膈 槁在下者 食雖可入良久復出 名曰反胃

* 反胃 原因 氣血虧損 復因悲思慮忤則 脾胃受傷 血液漸耗 鬱氣生痰 痰則塞而不通 氣則上而不下 妨碍道路 飲食難進 噎塞所由成也

* 按積之成也 正氣不足而後邪氣距之 如小人在朝 由君子之衰也 正氣與邪氣 勢不兩立 弱低昂然 一月生則一負 邪氣日昌正氣日削 不攻去之 喪亡以之矣

* 初者 病邪初期 正氣尚強 正氣尚淺 則任受攻中者 受病漸入 邪氣較深 正氣較弱 任受且攻且補 末者 病魔經久 邪氣浸凌 正氣消淺 則任受補

15) 景岳全書²⁰⁾

* 噎膈一證 必以憂愁思慮 積鬱 或酒色過度 損傷而盛 蓋憂思過度則氣結 氣結則施化不行 酒色過度則燥結病於下 胃司受納 脾主運化 腎者水火之宅 化生之本 今既飲食停膈不行…

* 噎膈之證 少年少見此證 而惟中衰耗傷者 多有之

* 反胃 或以膏食無度 傷於酒濕 或以從食生冷 敗其真陽

* 雜證謨積聚：不知飲食之滯 非寒未必成積 而風寒之邪 非食未必成形 故必

以食遇寒 以寒遇食 或表邪未清 過于飲食 邪食相搏 而積斯成矣

* 積聚之病 凡飲食血氣風寒之屬 皆能致之

* 風寒外感之邪 亦能成積 如經曰 虛邪之

中人也 留而不去 傳舍于 腸外之外 募原之間 留著于脈息而成積

* 乳巖屬肝脾二臟 鬱怒氣血虧損 故初期小核 結於乳內 肉色如…大抵男子多有房 勞耗傷 肝腎 婦人鬱怒虧損肝脾者 審之

* 肝積肥氣 肺積息賁 發作有時 強皆肝木 有餘 亦不可峻攻

16) 醫宗金鑑¹²⁾

* 賁門乾枯 則納入水穀之道路狹隘 故食不能下 爲噎食也 幽門乾枯 則放出腐化之道路狹隘 故食入反出爲反胃也

* 蝨瘻 由脾火積 火結聚而成

* 失榮 憂思怒鬱火凝然

3. 考 察

1) 癌腫에 대한 韓醫學의 認識範疇

韓醫學에서 癌腫의 記載는 宋의 〈衛濟寶書〉에서 ‘岳’字를 使用하여 癰疽五發의 一種을 說한 곳에서 가장 먼저 보인다. 그러나 現代醫學의인 癌腫의 證과 類似한 證名을 記載한 곳은 殷墟 甲骨文字에서의 ‘瘤’자인데 〈黃帝內經靈樞 刺節眞邪篇〉에서 나타나는 ‘筋溜’, ‘腸溜’, ‘昔瘤’ 등이며, 또한 葛洪의 〈肘後備急方〉에서는 “治卒暴症 腹中有物如石 痛如刺 晝夜啼呼 不治之百日死”라 하여 比較的 急症의 腹部內 癥塊를 暴症이라 稱한 곳에서 類似한 症狀이 가장 먼저 보인다⁶⁾.

이러한 癌腫이 韓醫學의으로 어떠한 證名으로 記載되어 있는지를 最近 韓醫學書籍의 癌腫 또는 癌瘤를 論한 部分을 중심으로 考察하여 보았다. 먼저 〈中醫師臨床手冊〉¹⁶⁾에서는 ‘瘤, 岩, 癥瘕, 積聚, 崩漏, 噎膈, 臑瘻, 失榮, 舌菌, 蝨瘻, 等의 範疇에 屬한다’하였고 〈中醫 外科學〉⁵⁾에서는 ‘瘤, 癥瘕, 積聚, 噎膈, 乳癌, 鎖肛痔, 腎岩, 舌岩, 蝨瘻, 石疽, 癭瘤

等에 記載되어 있다’고 하였다. 〈實用中醫內科學〉⁶⁾에서는 ‘肉眼的으로 볼 수 있는 癌證에는 乳岩, 腎岩, 蝨瘻, 舌菌, 失榮, 癭瘤 等の 區分이 있으며 內臟에 罹患된 癌證에는 癥瘕, 積聚, 噎膈, 反胃, 崩漏, 帶下 等證 中에 散在되어있으나 歷代醫家들이 말한 癌證의 概念과 內包된 意味는 現代의 癌腫과 完全히 一致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郁¹⁵⁾은 ‘中醫學에서는 惡性種類를 大多數 病狀 或은 體證을 主로 하여 命名하고 있는데 噎膈, 反胃, 症積, 脾積(痞氣), 肝積(肥氣, 脾黃), 肺積(息賁), 心積(伏梁), 失榮, 上石疽, 乳岩, 疾乳, 石瘻, 腎岩, 蝨瘻, 舌菌, 喉百葉, 五色帶下, 骨疽, 石丁, 黑丁, 繡花瘡, 肉瘤, 肉色疽 等に 相當한다’고 하였다. 〈癌瘤防治研究〉²⁾에서도 ‘瘤, 腫瘍, 癌, 癭瘤, 巖, 噎膈, 反胃, 癥瘕, 積聚, 乳巖, 陰瘡, 繭瘻, 舌菌 等の 癌類와 類似한 疾病들이 韓醫學書籍에 記錄되어있다’고 하였다. 裴⁴⁾는 乳巖, 積聚, 癥瘕, 疔瘻, 腦疽, 氣瘤, 血證, 噎膈, 腸覃 等の 病名으로 癌腫과 類似한 病證으로 記錄된 것이 있으나 科學的 證明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癌과 같다고 斷定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 厲¹¹⁾는 ‘癌腫은 癌에서 聯想한 말이며 體內에 出現하는 表面이 울퉁불퉁하고 굳은 腫塊를 指稱하고 古代에도 많은 癌에 對한 記錄이 있지만 專門書는 적어서 癥瘕, 積聚, 噎膈 等과 連繫된 病證 가운데 散見되며, 內臟癌은 대체로 癥瘕, 積聚, 疔瘻, 噎膈, 反胃, 臑瘻, 腸覃, 石瘻, 十二滯症, 崩漏, 骨疽 等の 病名 가운데 包括되고 體表의 癌은 惡瘡, 失榮, 繭瘻, 舌菌, 乳岩, 黑丁, 癭瘤, 黑丁, 腎岩 等に 該當한다’고 하였다. 張²¹⁾은 ‘古代醫書 中에서 腫瘤는 腫瘍 或은 瘡瘍의 範圍 內에서 散在되어 있으나 그 主要名稱은 癭, 瘤, 岩, 菌, 瘕, 瘕, 積, 聚, 噎膈, 反胃, 腸覃, 痞塊, 疔瘻, 毒疱, 潰

〈表 1〉 癌腫의 韓醫學的 認識範疇

分類	韓醫學的 認識範疇
內臟癌	瘤 岩 巖 癥瘕 積聚(五積六聚) 崩漏 噎膈 反胃 腸覃 臟毒 十二滯症 痞塊 疝瘕
體表癌	瘤 岩 巖 失榮 舌菌 舌岩 蜚腎 鎖肛痔 腎岩 石疽 癭瘤 妬乳 骨疽 石丁 黑丁 翻花瘡 肉瘤 肉色疽 陰瘡 繭腎 腦疽 惡瘡 息肉 贅疣痣 喉白葉 惡肉

〈表 2〉 人體各部的 癌腫에 對한 韓醫學的 認識範疇

分類	韓醫學的 認識範疇
食道癌	噎膈 反胃 關格
胃癌	噎膈 反胃 胃脘痛 心下痞 心口痛 膈氣 癥瘕 心積 伏梁
肝癌	癥瘕 脾積 肝癰 肥氣 積聚 鼓脹 黃疸 血黃 肝脹 肝疽 癰黃
子宮頸癌	帶下 崩漏 石瘕 瘕聚 血蠱 血瘕 血癥
肺癌	肺積 息賁 咳嗽 喘息 胸痛 勞咳 痰飲 痞癖
乳腺癌	乳岩 嫉乳 妬乳 苟抄乳 乳痛堅 乳石痛 癭巖 乳石癰 乳巖
大腸癌	臟毒 下焦濕熱 腸風 鎖肛痔 腸覃 腸中積聚 結陰 癥瘕 積聚
舌癌	舌菌 舌岩
皮膚癌	翻花瘡 惡瘡
陰莖癌	腎岩 翻花下疳
直腸癌	鎖肛痔 積聚 腸覃
骨肉瘤	骨瘤 骨勞 腎虛勞損
淋巴瘤(頸部)	失榮 上石疽 石疽 陰疽 瘰癧 惡核
甲狀腺癌	石榮 癭瘤 瘰癧
腎癌	蜚腎
喉癌	喉白葉 喉瘤 爛喉風 纏喉風 喉痺
黑色素瘤	脫疽 癰疽
體表惡性腫瘤	石丁 黑丁 翻花瘡
鼻咽癌	腦砂
夷腺癌	結胸 膈痛 心痛
膀胱癌	溢血 血淋 濕毒下注
白血病	虛損 勞瘵 血證 熱勞 積聚
脊髓腫瘤	風痺 癱瘓 痿痺

瘍, 翻花, 息肉, 疣痣, 贅, 惡肉, 肉瘤 등이 있다'하였다.

이로 보아 癌腫은 歷代 韓醫學書籍에서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瘤 岩 癥瘕 積聚 崩漏 噎膈 失榮 舌菌 蝨腎 乳岩 鎖肛痔 腎岩 舌岩 石疽 癭瘤 反胃 帶下 妬乳 喉百葉 骨疽 黑丁 翻花瘡 肉瘤 肉色疽 巖 陰瘡 菌腎 疥癬 腦疽 腸覃 臟毒 十二滯症 惡瘡 痞塊 息肉 疣痣 贅 惡肉 등에서 찾을 수 있다.

人體의 各部에서 發生하는 癌腫과 韓醫學의 證名과의 聯關性을 考察하여 보면 〈中醫 師臨床手冊〉¹⁶⁾에서는 '胃癌과 食道癌은 消化器에서 比較的 常見되는 惡性腫瘤로 中年以上の 男子에게서 많이 發生하며 噎膈, 反胃의 範圍에 屬하며 肝癌은 癥瘕의 範疇에 屬하고 子宮頸癌은 帶下, 崩漏 等の 病證에서 類似한 記載가 있다'고 하였다.

陳 等²⁸⁾은 '原發性支氣管肺癌은 類似한 部分이 肺積, 息賁, 咳嗽, 喘息, 胸痛, 勞咳, 痰飲 等證 中에서 記載되었고, 乳腺癌은 乳岩의 範疇에, 食管癌은 噎膈 또는 傳統的으로 噎食證 倒食으로 稱하며, 胃癌은 胃脘痛 心下痞 反胃 心口痛 等の 範疇에, 肝癌은 肝積 肝癰 肥氣 積聚 鼓脹 黃疸 九種心痛의 範疇에 屬하며, 大腸癌은 臟毒 下焦 濕熱 腸風 鎖肛痔 腸覃 等證의 範疇에 屬한다'하였다.

〈中醫外科學〉⁹⁾에서는 '舌癌은 上皮癌의 하나로 舌面に 生하여 菌의 形狀을 하고 있어 舌菌이라하고 皮膚癌은 翻花瘡이라하며 陰莖癌은 陰莖이 腎에 屬하므로 腎癌이라하는데 日久하면 形態가 石榴같다하여 翻花下疳이라고도하고 乳癌은 乳岩이라고도 하며 直腸癌, 肛門癌은 後期에 이르러 肛門이 狹窄되어 鎖住肛門과 같은 模樣이 되므로 鎖肛痔라고 하며 骨肉瘤는 骨瘤라고도한다'하였다.

郁¹⁵⁾은 '噎膈은 食道癌 食噴癌에 相當하고

反胃는 食竇癌과, 症積은 腹部內惡性腫瘤와, 脾積(痞氣)은 肝癌 및 肝脾種大와, 肝積(肥氣, 脾黃)은 肝腫瘤와, 肺積(息賁)은 肺癌과, 心積(伏梁)은 胃 肝 膽 脾腺腫瘤의 範圍안에 屬한다. 失榮은 亞急性淋巴瘤나 頸淋巴結轉移癌에, 上石疽는 頸淋巴結轉移癌이나 惡性淋巴瘤에 相當하고 乳岩은 乳腺癌과, 嫉乳는 乳腺濕疹樣癌과, 石癭은 甲狀腺癌과, 腎岩은 陰莖癌과, 蝨腎은 腎癌과, 舌菌은 舌癌과, 喉百葉은 喉癌과, 五色帶下는 宮頸癌晚期 및 盆腔惡性腫瘤와, 骨疽는 骨의 惡性腫瘤와 같으며 石丁, 黑丁, 翻花瘡은 體表의 惡性腫瘤와 黑色素瘤, 惡性潰瘍 等に 相當한다. 肉瘤, 六色疽는 軟組織惡性腫瘤에 相當한다'하였다.

〈癌瘤防治研究〉²¹⁾에서는 '食道癌은 關格 膈證 噎膈 膈食 回食病 等과 類似한 症狀으로 나타나며, 胃癌은 反胃 胃反 膈氣 等과 類似한 症狀으로, 肺癌은 肺積 息賁 等과, 子宮癌은 石癭 癥聚 血蠱 血癭 血癥 等과, 乳腺癌은 妬乳 苟抄乳 乳痛堅 乳石痛爛巖 乳巖 等과, 肝癌은 肝積 肥氣 堅癥 積聚 肝脹 肝著 및 癖黃 等과 유사한 증상으로, 腸癌은 大腸部位의 癌瘤를 韓醫書에서는 腸中積聚라고 부르고 있는데 臨床의으로는 腸癌을 다시 結腸癌(腸風下血), 直腸癌(臟毒), 肛門癌(結陰) 等으로 나눌 수 있다'하였다.

厲²¹⁾는 '癌의 病名은 部位, 腫瘍의 形態 및 主要한 症狀 等에서 命名되고 있는데 中醫學에서의 癌의 證名은 胃癌은 噎膈 反胃 胃脘痛 癥瘕 等으로, 肺癌은 肺積 痞癖 咳嗽 胸痛 喘息 等으로, 乳癌은 乳岩과, 子宮癌은 帶下와 肝癌은 癥瘕 積聚 黃疸 鼓脹 肥氣 等으로, 腸癌은 癥瘕 積聚 臟毒 等으로, 皮膚癌은 惡瘡으로 命名된다'하였다.

李¹⁷⁾는 '腎癌은 蝨腎에서, 舌癌은 舌菌에서, 鼻咽癌은 腦砂에서, 喉癌은 喉瘤 爛喉風 纏喉

風 喉痺 等에서, 甲狀腺癌은 瘰癧에서, 乳腺癌은 乳石癰 乳岩 妬乳 等에서, 肺癌은 息賁에서, 肝癌은 脾積 肥氣 癰黃 血黃 等에서, 夷腺癌은 結胸 膈痛 心痛에서, 食管癌은 膈中 噎膈 等에서, 胃癌은 心積 伏梁 反胃 噎膈 等에서, 肛門直腸癌은 鎖肛痔 積聚 腸覃 等에서, 膀胱腫瘤은 溺血 血淋 濕毒下注 等에서, 宮頸癌은 帶下에서, 惡性淋巴瘤는 石疽 陰疽 癰癤 惡核 失榮 等에서, 白血病은 虛損, 勞瘵, 血證, 熱勞, 積聚 等에서, 骨肉瘤는 骨勞, 腎虛勞損 等에서, 脊髓腫瘤은 風痺 癱瘓 痿痺 等에서, 骨髓瘤는 血虛頭痛 肝炎頭痛 痿痺 腎虛 等에서, 黑色素瘤는 脫疽 癰疽 等에서 비슷한 症狀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以上에서 살펴본 結果, 人體 各部에서 發生하는 癌腫의 症狀과 그 發病特徵에 비추어 歷代韓醫學書籍에서는 表2에서 보는 바와 같은 證名으로 記載되어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2) 癌腫의 病因病理

癌腫은 韓醫學의 으로 表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가지 證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人體 各部의 癌腫의 一般的 發現症狀과 特徵으로 보아 噎膈 反胃 積聚(五積六聚) 乳岩 崩漏 帶下 失榮 疔瘡 癰癤 腸覃 等證 中에서 그 病因과 病理를 考察할 수 있는데, 먼저 噎膈, 反胃에 對하여서는 <黃帝內經> 等^{7,10)}에서 “膈塞閉絕 上下不通 則暴憂之病也”라하여 七情, 卽 暴憂가 原因으로 氣結하여 發生한다 하였고 張等^{8,23)}은 胃氣無餘와 傷脾하여 胃反한다 하였으며 또한 巢等^{6,7)}은 氣, 鬱, 勞, 食, 思의 五역로 나누어 論하였는데 이는 噎膈의 原因이 氣憂勞食思 等에 依하여 나타남을 說한 것이다. 이상으로 보아 七情 特히 憂 思로 因한 氣鬱이 原因임을 알수 있다. 또한 李¹⁸⁾는 “氣血虧損 復因悲思憂恚 則脾胃受傷 血液漸耗 鬱氣生

痰 痰則塞而不痛 氣則上而不下 妨碍道路 飲食難進 噎塞所由成也”라 하였고 王¹⁴⁾도 氣와 痰의 相搏으로 噎膈이 生한다 하였으며 張²⁰⁾ 또한 “血氣虛敗한 때문에 發生하며 憂思過度하여 氣結하고 酒色過度하여 燥結하여 發生한다”하였는데, 이는 氣血虧損한데 悲憂思의 七情過度로 氣結, 生痰하여 痰塞으로 發病한다고 認識하였고 여기에 酒色過度로 因한 燥結을 原因이라 하였다. 以外에도 朱²⁷⁾는 翻胃의 原因을 血虛, 氣虛, 有熱, 有痰으로 說하였고 李¹⁹⁾는 “內傷憂鬱, 失志와 飲食, 淫慾으로 脾胃, 肝腎之火를 動하게 하여 나타나기도 하며 雜病에 辛香燥藥을 誤服하여 血液衰耗하고 胃脘枯槁하여 發證하기도 한다”하여 陳 等^{1,28)}의 “長期間의 憂思鬱怒와 嗜食酒辣油煎硬物로 肝失疎泄 胃失化降하여 氣滯 痰凝 血瘀 等의 一系列病理變化를 形成하여 胃의 通降之路를 阻塞하여 病延日久하면 氣化內鬱 津液耗損 陰血枯竭한 卽 胃失濡養하고 심지어는 胃氣虛敗 脾陽不振하여 晩期의 衰竭證候를 보인다”한 것으로 整理할 수 있다.

積聚에 對하여서는 <黃帝內經>¹⁰⁾에서는 “津液血氣腸胃之所生也 腸胃惡則 邪氣留止而成積聚 內傷腸胃之間 若在飲食之寒溫不次 邪氣稍至卽蓄積”이라 하여 寒溫飲食의 不調로 內傷腸胃하여 邪氣가 留止하여 積聚가 生한다고 認識하였으며 또한 “積之始生 得寒內生厥 乃成積也”라 하여 寒厥을 原因으로 說하였고 또 “凡七情六鬱之犯 飲食勞動之傷 以致痰凝氣聚 血蓄成積”, “有所大怒 氣上而不下 積于脇下則傷肝”이라 하여 大怒氣上 및 七情六鬱과 飲食勞傷으로 痰凝 氣聚 血蓄하여 積聚가 發生한다고 하였다. 巢⁷⁾는 “積聚者 乃陰陽不和 臟腑虛弱 受于風邪 搏于臟之氣少爲也”, “積聚者 臟腑之病也 虛勞之人 陰陽傷損 血氣凝澁 不能宜通經絡 故積聚于內也”라 하

여 虛勞之人 卽 陰陽不和하고 臟腑虛弱한데 風邪를 感受하여 血氣凝滯 經絡阻滯하여 積聚가 生한다하였다. 嚴¹⁰⁾은 “陰陽不和 臟腑虛弱 風邪搏之 所以爲聚也 有如憂思喜怒之氣 人之所不能無者 過則傷乎五臟 逆于四時 傳剋不行 乃留結而爲五積 故在肝曰肥氣 在心曰伏梁 在脾曰痞氣 在肺曰息賁 在腎曰奔豚”이라 하여 積聚의 原因인 陰陽不和 臟腑虛弱은 憂思喜怒의 七情에 依하여 臟腑機能이 損傷되는 것으로 認識하였다. 또한 張²⁰⁾은 “故必以食遇寒 以寒遇食 或表邪未清 過于飲食 邪食相搏 而積斯成矣”, “積聚之病 凡飲食血氣風寒之屬 皆能致之”, “凡脾胃不足及虛 若失調之人 多有積聚病 蓋脾虛則中焦不運 腎虛則下焦不和 正氣不行 則邪滯得而去之”, “風寒外感之邪 亦能成積”이라 하여 脾胃와 氣血의 不足과 더불어 飲食之滯와 風寒外感의 相搏이 積聚의 原因임을 說明하였다. 朱²⁷⁾는 “痞塊在中爲痰飲 在右爲食積 在左爲血塊 氣不能作塊成聚塊乃有形之物也 痰與食積死血而成也 脾胃虛肝胃虛 肝火積氣滯而成痰食積死血”라 하여 肝脾胃虛로 氣滯하여 痰 食積 死血을 이뤄 서로 搏結하여 積聚가 生한다고 認識하였다. 또 李¹⁹⁾는 “積聚癥瘕痞悶 皆太陰濕土之氣 始因外感內傷氣鬱 醫誤補而留之 以成積 積者陰氣 五臟所生 脈沈伏 或左或右 發有根 痛有常處”, “肝積左脇下曰肥氣 言風氣有餘而血滯氣不行也”, “不知飲食之滯 非寒未必成積 而風寒之邪 非食機成形 故必以食遇寒 以寒遇食 或表邪未清 過于飲食 邪食相搏 而積邪成矣”라 하여 外感 및 內傷으로 因한 氣鬱을 原因으로 생각하였으며 風寒外感과 食滯 中 하나에 依하여 發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搏結로 致病한다고 하였다. 또한 李¹⁸⁾는 “按積之成也 正氣不足而後邪氣距之”라 하여 正氣不足後에 邪氣의 侵入으로 積聚가 發生한다

하였다. <衛生寶鑑>에서는 “凡因脾胃虛弱或飲食過傷或生冷過度 不能剋化 致成積聚結塊”라 하여 脾胃虛弱 飲食不節을 原因이라 하였다. 그리고 <中醫師臨床手冊>¹⁶⁾에서 “肝癌은 熱毒凝結 氣滯血瘀로 肝脾受損하고 氣血日耗하여 邪實과 正虛가 相互錯雜하여 晩期로 發展하고 또한 肺癌은 痰熱壅肺로 絡損血瘀하고 久則傷陰耗氣하여 日漸虛損하게 된다”하여 肝積 및 肺積 등으로 考察되어지는 肝癌과 肺癌이 共히 熱毒 및 痰熱, 氣滯血瘀로 發生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歷代醫書에서 積聚의 原因을 風寒外感과 食積 痰凝 血瘀 등으로 論한 것과 차이가 있으나 風寒邪氣의 侵入後에 邪氣壅結하여 化熱한 狀態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 崩漏帶下에 對하여서는 <實用中醫內科學>⁶⁾에서 “<古今醫統>에서 말하기를 ‘婦人崩漏…多是憂慮過度 氣血俱虛 此爲難治’라는 것으로 보아 憂慮過度와 氣血俱虛로 致病한다”하였고 <中醫師臨床手冊>¹⁶⁾에서는 “子宮頸癌이 早婚多産 精神抑鬱 濕熱下注 宮頸糜爛 등과 關係가 있는데 正氣不足 氣血凝滯하고 或은 濕毒鬱熱이 蘊積胞宮하여 形成된다”하였다. 乳岩에 對하여서는 陳²⁹⁾은 “乳癌由于憂思鬱結積想在心 所願不遂 肝脾逆氣 以致經絡阻塞 結聚成結”이라 하여 七情不舒가 乳岩의 原因이라 하였고 陳³⁰⁾도 “肝脾鬱怒 氣血虧損 名曰乳岩”이라 하였으며 張²⁰⁾도 또한 “乳岩屬肝脾二臟 鬱怒氣血虧損”이라하여 乳岩이 憂怒思의 七情鬱結로 因한 肝脾逆氣와 氣血虧損으로 發病함을 알 수 있다. 失榮에 對하여서는 吳¹²⁾가 “憂思怒鬱火로 因한다”하여 七情이 主要原因임을 說하였다. 腸羶에 對하여서는 <黃帝內經>¹⁰⁾에서 “寒氣客于腸外 與衛氣相搏 氣不得榮 因有所系絳而內着 惡氣乃起 息肉乃生 其始生也”라하여 寒邪 等

外邪와 衛氣가 相搏하여 생긴다고 하였다. 苗
 醫에 對하여서는 陳²⁹⁾은 “苗醫乃陽明胃經症
 也 因食煎炒過滄炙燻 又兼思慮暴急 痰隨火行
 留注于腎 初結似豆 漸大若蠶蚘”이라 하였고
 吳¹²⁾는 “由脾火積火結聚而成”이라 하여 煎炒
 飲食을 多食하고 思慮過度하여 痰과 火의 結
 聚가 原因이라 하였다. 石痘에 대하여는 吳¹²⁾
 가 “肝鬱凝結于經絡에서 生한다”하였고 癭瘤
 에 對하여서는 〈三因方〉에서 癭瘤의 病因病
 機가 內傷七情에 起因하는데 憂忡怒氣와 痰
 濕이 癭瘰하여 生한다¹⁷⁾고 하였다.

〈實用中醫內科學〉等^{2,5,6,10)}에서는 “癌의 發
 病은 主로 臟腑陰陽氣血의 失調로 起因하는
 데 이것은 正氣虛한데 外邪의 侵入 或 痰 濕
 氣 瘀 等과 結搏되어 日久하여 積滯되어 생
 긴다. 病因病機로 外因은 外來의 風寒邪氣가
 痰食之滯와 더불어 相互影響하여 形成하고
 飲食에 傷하여 脾虛하게되고 脾虛하면 痰食
 이 停滯하여 腸胃之間에서 寒溫不調로 外邪
 와 더불어 搏結하여 積聚를 形成하며, 內因은
 七情飲食 等の 因素가 長期間 人體에 作用하
 여 形成된 機體의 陰陽失調와 正氣衰退가 癌
 症의 生成과 成長의 條件이 되고 癌症이 빠
 르게 發展하면 더한층 正氣를 耗傷하고 臟腑
 氣血陰陽失調로 痰結 濕聚 氣阻 血瘀 鬱熱
 等과 같은 一連의 病理性 因子를 生成하여
 正虛와 同時에 併存하여 相互因果關係를 이
 루어 惡性循環을 만들어 내므로 癌症은 쉽게
 治愈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厲³¹⁾는
 “癌의 病因으로 外邪感受의 外因과 憂慮, 怒
 등의 感情不舒의 내인 및 過度한 飲酒나 뜨
 거운 것, 매운 것, 기름에 튀기거나 지진 것,
 불에 구운 것, 消化가 잘 안되는 飲食物의 多
 食의 飲食不調와 起居不調, 또 痰이나 濕이
 생겨서 痰과 瘀가 搏結되어 癌이 發生한다.
 이와 같이 平素의 飲食不節制가 脾胃를 損傷

하고 더 進行되어 痰濁, 食滯, 氣鬱, 血瘀 等
 의 病理變化를 招來하는 것이 癌發生의 主要
 原因이 된다”고 하였다. 張²¹⁾은 病因으로는
 七情不舒 飲食不節 過度勞倦 氣血虧損의 內
 因과 外感六淫의 外因으로 나누고 病機로는
 氣血不和 痰濕不化 毒邪蘊結 臟腑虛損으로
 整理하였다. 또한 李 等^{17,31)}은 癌의 病機를
 感情의 失調와 外邪感受로 因한 氣滯 血瘀가
 오래되어 變化하지 않고 結塊가 되는 氣滯血
 瘀型과, 脾肺機能의 失調로 因한 痰濁이 凝結
 되어 癌塊가 되는 痰凝毒聚型과, 邪毒은 邪毒
 그 自體를 外邪로서 感受하거나 或은 邪熱이
 오래 體內에 留하여 鬱結해서 變化되지 않고
 臟腑를 燒灼하여 그로 因해 腫塊가 形成되거
 나 肉이나 血이 腐敗해서 膿血이 그치지 않
 게되는 毒熱蘊結型과, 臟腑氣血의 虛損한데
 邪氣가 虛를 틈타서 深入하므로 正氣가 더욱
 더 消耗되어 邪盛正虛하는 正氣虧虛型 및 脾
 胃가 虛弱하여 水濕이 內部에 蓄積되어 毒이
 되는 脾虛濕聚型의 分型하여 論하였다.

그러므로 癌腫의 原因은 內因과 外因, 不內
 外因으로 나눌 수 있는데, 外因은 風寒暑火濕
 等の 外邪를 感受하는 것이고 內因은 怒憂思
 悲恐의 鬱結에 依한 七情內傷이며 不內外因
 은 辛鹹, 甘膏, 煎炒, 酒濕의 飲食失調와 過
 勞, 房勞過度와 關係가 있다. 癌腫은 年老하
 고 脾胃衰退之人에게 많은데 그 病理機轉은
 人體의 臟腑陰陽氣血이 失調한 데에 外感邪
 氣와 七情內傷, 飲食失調, 過勞, 房勞過度의
 致病因素가 痰凝, 濕聚, 氣滯, 血瘀, 毒蘊 等
 의 病理因素과 相互搏結함으로서 癌腫이 發
 生함을 알 수 있었다.

結 論

以上에서 癌腫의 韓醫學의 認識範疇 및 病

〈表 3〉 癌腫의 韓醫學의 因 病因

分類	歷代醫家學說
內因	<p>噎膈：暴憂，氣憂思，痰與氣，內傷憂鬱，憂愁思慮積鬱，憂恚</p> <p>反胃：胃氣無餘，脾傷，血虛氣虛，氣血虧損復因悲思憂恚</p> <p>積聚：大怒，七情六鬱之犯，陰陽不和，臟腑虛弱，暴怒喜悲思恐之氣</p> <p>痞塊：痰</p> <p>乳癰 乳岩：憂鬱思慮，鬱怒氣血虧損</p> <p>失榮：憂思勞鬱火凝</p> <p>苗疔：思慮暴急</p>
外因	<p>反胃：有熱</p> <p>積聚：得寒乃生厥，受于風邪，風邪搏之，受風暑暴寒火濕之邪</p> <p>風氣有餘，風寒之邪</p> <p>瘤病：四時八風之客于經絡之中</p> <p>腸覃：寒氣客于腸外</p>
不內外因	<p>噎膈：飲食失節 勞役形體，誤服辛香燥藥，酒色過度</p> <p>反胃：膏食無度 傷於酒濕 食生冷</p> <p>積聚：飲食勞動之傷，傷膏甘辛鹹之食 停溫冷熱寒之飲</p> <p>痞塊：食積 死血</p> <p>乳岩：房勞耗傷</p> <p>苗疔：過食煎炒炙</p>

〈表 4〉 癌腫의 韓醫學의 病理機轉

噎膈 反胃	<p>憂規則氣結 氣結則不宜流 便噎</p> <p>痰爲氣所隔而上 氣又爲痰所隔而滯 痰與氣搏 不能流通</p> <p>脾胃受傷 血液漸耗 鬱氣生痰 痰則塞而不通 氣則上而不下</p>
積聚	<p>飲食之寒溫不次 邪氣稍至 卽蓄積</p> <p>以致痰凝氣聚血蓄成積</p> <p>以食遇寒 以寒遇食 或表邪未清 過于飲食 邪食相搏 而積斯成矣</p> <p>虛勞之人 陰陽傷損 血氣凝滯 不能宜通經絡 故積聚于內也</p> <p>陰陽不和 臟腑虛弱 風邪搏之 所以爲聚也 傳剋不行 乃留結而爲五積</p>
腸覃	<p>寒氣客于腸外 與衛氣相搏 因有所系癖而內着 惡氣乃起 息肉乃生</p>
乳癰 乳巖	<p>所願不得 致經絡痞澁 聚結成核</p> <p>肝脾鬱怒 氣血虧損</p>
苗疔	<p>痰遂火行 留注于疔</p> <p>脾火積 火結聚而成</p>

因病理를 알아보기 爲하여 癌腫에 關해 論述한 現代韓醫學書籍 10種과 癌腫과 類似한 證에 關하여 論한 歷代書籍 中에 著者가 所藏하고 있는 16種의 韓醫學書籍을 中心으로 考察하여본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癌腫은 韓醫學의 內臟癌 은 瘤 岩 癥瘕 積聚 崩漏 帶下 噎膈 反胃 腸覃 痞塊 疝癖 等에서, 體表癌은 失榮 舌菌 蝨瘡 乳岩 鎖肛痔 腎岩 舌岩 石疽 癭瘤 妬乳 喉百葉 骨疽 石丁 黑丁 翻花瘡 肉瘤 肉色疽 巖 陰瘡 齒疔 腦疽 惡瘡 息肉 疣痣 贅 惡肉 等에서 찾을 수 있다.

(2) 癌腫의 原因은 風寒暑火濕 等の 外邪를 感受하는 外因과, 怒憂思悲恐鬱結에 依한 七情內傷의 內因과, 辛鹹 甘膏 煎炒 酒濕의 飲食失調과 過勞, 房勞過度의 不內外因으로 나눌 수 있다.

(3) 癌腫의 病理機轉은 人體의 臟腑陰陽氣血이 失調한 데에 外感邪氣와 七情內傷, 飲食失調, 過勞, 房勞過度의 致病因素가 痰凝, 濕聚, 氣滯, 血瘀, 毒蘊 等の 病理因素과 相互搏結함으로서 癌腫이 發生한다.

參考文獻

1. 朴良元：現代公衆保健學，서울，癸丑文化社，1982，pp.392~400.
2. 申天浩 譯：癌瘤防治研究，서울，新光文化社，1984，pp.25~29, 31, 65, 89, 121, 159, 175, 193, 209, 219, 235.
3. 洪元植：現代中共의 癌治療，서울，英文社，1980，pp.282, 304, 309, 309, 320, 329.
4. 裴元植：癌治療에 있어서 現在와 展望，醫林 210호，1992，pp.72~75.
5. 上海中醫學院 編：中醫外科學，上海，上海商務印書館，pp.282, 304, 309, 320, 329.
6. 上海中醫學院 編：實用中醫內科學，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6，pp.621~635.
7. 巢元方：諸病源候論，北京，人民衛生出版社，1979，pp.576, 644, 691~692.
8. 孫思邈：備急千金要方，서울，大星文化社，1984，p.295.
9. 楊寶仁：癌症의 中醫治療，河北，河北科學技術出版社，1992，pp.1, 6, 7, 17~22.
10. 楊維傑 編：黃帝內經素問靈樞譯解，서울，成輔社，1980，pp.41, 45, 97, 168, 243, 295, 296, 407, 347, 469, 473, 577.
11. 嚴用和：濟生方，서울，驪江出版社，1987，p.483.
12. 吳謙 外：醫宗金鑑，서울，大星文化社，1983，p.158.
13. 王肯堂：證治準繩，서울，驪江出版社，1987，p.457, 530.
14. 王肯堂：證治要訣，臺北，旋風出版社，1979，pp.101~102.
15. 郁仁存 外：癌症診治康復350問，北京，金盾出版社，1989，pp.98~105.
16. 原安徽中醫學院 編：中醫師臨床手冊，서울，成輔社，1983，p.219.
17. 李岩：腫瘤臨證備要，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pp.1~3, 137~231.
18. 李中梓：醫宗必讀，臺北，綜合出版社，1976，pp.410, 412, 473.
19. 李梴：醫學入門，서울，大成文化社，1990，pp.67, 144~146.
20. 張景岳：景岳全書，서울，大星文化社，1981，pp.54, 451~456, 477~479, 574, 627, 653, 717.
21. 張代劍：中西醫結合治療癌症，山西，山西

- 人民出版社, 1984, pp.1~10, 25~25.
22. 張子和：儒門事親，臺北，旋風出版社，1977, pp.157.
23. 張仲景：金匱要略，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7.
24. 齊德之：外科精義(東垣十種醫書)，서울，大星文化社，1983, pp.561.
25. 趙佶 外：聖濟總錄，臺北，新文豐出版社，1979, pp.616, 723, 1013.
26. 趙峯樵：癌症治療之研究，臺北，經緯印刷所，1959, pp.2, 3, 28~32.
27. 朱震亨：丹溪心法附餘，서울，大星文化社，1982, p.556, 627.
28. 陳貴廷 外：實用中西醫結合診斷治療學，北京，中國科學技術出版社，1991, pp.1370~1400.
29. 陳實功：外科正宗，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7, p.75, 80.
30. 陳自明：婦人大全良方，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5, p.27.
31. 厲 暢：癌의 中醫治療，서울，東洋醫學，V.18, N.1, 1992, pp.56~63.